

민주화세대와의 결별'이라는 말

혁신안 투표는 끝났지만 제주 녹색당 안에서는 이제 토론이 시작된 듯하다. 끈질기게 '민주화 세대와의 결별'이라는 말에 의문을 제기한 당원이 있었고, 나는 그의 말을 모두 동의하진 않으나 정당이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 특정한 이름을 부여하는 이른바 '호명의 정치'에 얼마만큼 책임질 준비가 되어있는지는 궁금했다.

최근 민주화세대하는 이름을 접하면서 X세(90년대 오렌지족이라는 과소비 향락문화와 함께 미디어가 당시 젊은이들에게 붙여준 이름이다)로 불리던 한때를 기억해냈다. 친구들이 화염병을 안고 죽어가던 절망의 봄에, 미디어는 우릴 가리켜 그렇게 불렀다. 그 이름은 우리 바깥에서 주어진 것이었고, 그것의 의미가 정치사회적으로 재해석되어 멋대로 사용되는 것에 우린 속수무책이었다. 우리는 마치 그러한 특성을 가진 세대인듯 각자의 개성과 질문을 품은 채 납작하게 죽어갔다.

어떤 세대는 주어진 이름을 반납하지도 못한 채 죽어가고, 어떤 세대는 그 이름을 자신들의 것으로 전유한다.

사실 '세대'라는 말이 정치에 사용되는 것 자체가 이미 차별과 배제의 방법이라는 물음을 양산한다. 아무리 같은 때에 같은 기억을 경과한 집단이라도 그 내부엔 모순에 이를 만큼의 다양성이 존재하는데, 대체 세대란 말은 그 분류 기준을 무엇이라고 할 건가? 정치목적적 이해에 따라 분류되고 타자에 의해 호명되는 이름들엔 성찰이 없었다. 오히려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배제되었다. 왜 이런 일은 매번 새롭게 시작되는가?

지난 봄 총선 과정에서 역사성을 외면한 <리버럴 녹색>이 등장한 것은 갑작스런 일이 아니다. 몇 사람의 주도로 그렇게 된 것도 아니었다. 등장은 더 일찍 감지되었다. 당 안팎으로 '청년'을 내건 정치인이 나타났지만, 그 청년이란 이름은 어떠한 기능도 없는 단지 기표에 지나지 않았다. 이름의 필요성을 설득하기엔 도요이할 만한 내용이 보이지 않았다. 그가 단순히 자신의 정체를 '청년'이라고 했을 뿐, 무엇이 청년'이고 '왜 지금 청년'인지 구체적 이유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당시의 청년'을 불러내는 '지금의 청년'이 '1987년 민

주화세대'를 자처하며 수 십년간 한국사회를 신자유주의 체제로 만들어온 힘에 동원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이다.

호명은 정체성을 부여하고 지위를 주는 일이다. 나는 현재의 권력이 단지 그 시기의 청년이라는 이유로 민주화 세대로 확정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다.

호명이 시작되자 1987년의 정치적 성과를 독점하고 정체화하려는 움직임, 언어쟁탈이 본격화되었다. 국회에서 1987년 민주화세대도 국가유공자 처우를 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다. 기억과 망각의 정치, 그 과정에서 망각된 민주화의 실패, 1991년 정국에서 드디어 '민중'이라는 이름을 뺏기게 되었던 시대는 이제 기억되지 않는다. 1987이나 1991이냐의 논의가 아니라, 어떤 세대에 혹은 어떤 계층에 어떤 이름을 부여하는 것, 자격을 선점해 주는 것에 우리는 얼마만큼 책임질 준비가 되어있는지 묻는 것이다. 그리하여 1987년도에 목숨 걸고 화염병 던지고 백골단에게 맞아 머리가 깨진 민중들을 밟고, 민중이란 이름을 빼앗아가고 1987년의 정치적 성과를 챙겨간 소수 엘리트들에게 드디어 '민주화를 이룬 사람들(세대)'라는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 비교대상(변절된 이전의 청년들) 없이는 스스로 존립 불가능하다는 것을 역설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짐짓 명예롭게 외부화시킨 타자들과의 결별이 우리의 언어가 되는 일에 더 고민해야 했다.

어떤 문제를 '문제다'라고 말하기는 쉽다. 어떤 세대나 집단을 향해 문제의 원인을 떠넘기는것도 쉽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이 필요하다. 그 문제는 어디서 왔는가? 이 문제는 어떤 문제들의 총 합인가? 현재는 무엇으로 만들어 졌는가? 같은 것.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질문해야 한다.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고 외부로 입증하기 위해 이름을 짓는 한,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